

대주, 뉴질랜드 스카이라인 바꾼다



뉴질랜드 최고 67층 '엘리어트 타워' 승인 내년 초 착공... '랜드마크'급 주상복합타운

최근 국내 건설사들이 국내외에서 초고층건물 경쟁에 나선 가운데 대주건설이 추진중인 뉴질랜드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등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에 들어서는 '엘리어트 타워'(조감도)는 그동안 현지 업체들이 자금 및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좌초됐던 사업이라는 점에서 국내 건설업계의 위상을 해외에 알리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4일 대주건설의 현지법인인 '뉴질랜드 대주하우징'에 따르면 뉴질랜드 오클랜드시의 '엘리어트 타워'가 최근 오클랜드시가 주관한 공청회를 거쳐 사업승인을 받는 등 본격적인 사

업 추진에 들어갔다. '엘리어트 타워'는 내년 초 착공예정이며, 오는 2011년 뉴질랜드서 개최되는 '럭비월드컵' 개막에 맞춰 준공식을 갖게 된다. 이 건물은 뉴질랜드 최고층인 67층(232m) 규모로 들어서며, 인근에 위치한 '스카이라인'과 함께 오클랜드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건물의 총 규모는 4천400㎡의 부지에 연면적 9만2천㎡로, 백화점과 호텔, 아파트 및 상가 등 초대형 주상복합형 주거건물로 조성된다. 아파트의 경우 총 259세대가 입주할 예정이며, 최상위 3개층은 '스카이라인 하우스'로 공급된다.

'엘리어트 타워'의 사업 부지는 그동안 현지 업체들이 개발을 추진했지만 자금 및 시공능력 부족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어왔다. 하지만 대주건설은 지난해 부지 확보 및 기본설계 확정 등에 나선 이후 뉴질랜드 정부와 오클랜드시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사업을 본격적으로 올려놓음으로써 현지인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대주건설은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뉴질랜드 주택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최근 오클랜드시 흡수지구에 주상복합 '피오레'아파트를 2차례에 걸쳐 분양하는 등 해외시장 개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뉴질랜드 대주하우징 관계자는 "국내 업체의 '마천루' 경쟁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 초 착공을 앞둔 '엘리어트 타워'는 향후 오클랜드는 물론 뉴질랜드 최고의 명소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광주일보·중기청 선정 '10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이 정 석 에스에프시 대표

세계원료로 세계시장 석권한다

계면활성제 생산력 뛰어남 6개국 수출...연매출 355억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중기청이 공동주관한 '10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 시상식이 지난 2일 광주일보사 1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김진영 광주일보사사장, 이정석 에스에프시 대표, 박춘근 광주·전남중기청장.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지난 2003년 설립한 부설연구소의 역량을 더욱 확대하고 연구개발(R&D) 투자비용도 매출대비 10% 이상으로 끌어올려 신제품 개발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일 광주일보사와 광주·전남중기청이 공동주관한 '10월의 자랑스런 중소기업인'을 수상한 (주)에스에프시(여수시 화양면 화동리) 이정석(57) 대표는 "최근 6천여명에 달하는 여수공장 준공을 계기로 국내외 시장공략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98년에 설립된 에스에프시는 왁스 및 표면활성제 등 화학제품에 활용되는 계면활성제, 염도제 등을 생산하고 있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다.

전체 46명의 직원 가운데 9명을 연구인력으로 확보, 꾸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에스에프시는 헤어브러시의 약액공급장치, 염도제 혼합용 브러시 등 2건의 특허를 등록해놓고 있다.

이 대표는 "계면활성제의 경우 제일모직·한화 등 대기업에 원료로 납품되는 등 국내시장의 30%를 점유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다"

면서 "고객이 요구하는 품질을 경쟁력있는 가격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비투자 등에 더욱 관심을 갖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에스에프시는 올해까지 남미·동남아 등 6개국에 불과한 수출국을 10개국으로 늘려 수출드라이브에 나설 계획이다.

에스에프시의 수출물량은 2005년 401만6천달러, 2006년 432만7천달러 등으로 전체 매출에서 17~18%를 뺐을으나 올해는 767만7천달러로 20%를 넘었으며 내년에는 25%선인 1천만달러 달

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향후 신제품 개발과 사업 다각화를 모색, 콘크리트 혼화제·염색약·우레탄 등으로 해외 시장에 도전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이노비즈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는 에스에프시의 매출은 2005년 232억9천900만원, 2006년 256억3천만원에 이어 2007년 355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금값 온스당 808.50달러

"내년 매출 4조 돌파...글로벌 항공 도약"

1980년 이후 최고치

국제 금값이 미 달러화 가치의 역대 최저치로 추락 속에 1980년 이후 처음 온스당 800달러를 넘어 최고치로 상승했다.

2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금 값은 전날보다 14.80달러 오른 온스당 808.50달러에 마감돼 증가세로 1980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금값

은 지난달 31일 장중에 온스당 800.80달러까지 오르기는 했지만 증가가 800달러를 넘은 것은 1980년 이후 처음이다. 금값은 이날 장중에는 온스당 810.70달러까지 오르기도 했다.

금값은 1980년 1월 온스당 875달러를 기록한 이후 800달러를 넘지 못했으며 당시 800달러의 금값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할 경우 현재 가치로 치면 2천달러를 넘는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합뉴스

강주안 아시아나항공 사장

영향으로 조금 줄어들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내년에 여객기를 4~6대 추가 도입하고 아시아나항공의 강점인 중국 노선을 중점 공략해 매출과 수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다.

강 사장은 "아시아나항공 보유기는 올 연말까지 67대가 되는데 내년에 추가 도입해 내년 말 기준으로 72대까지 확보할 계획"이라면서 "A380 등 차세대 항공기 도입 여부도 올해 말까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전남 제조업체 9월 가동률 70.3%

광주·전남지역 제조업체의 평균가동률이 소폭 하락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영태)가 중소기업 106개 업체를 대상으로 생산설비 평균가동률을 조사한 결과 2007년 9월 광주·전남지역 평균가동률은 전년동

월 대비 0.8%p, 전월비 0.8%p 하락한 70.3%를 기록했다. 광주지역은 68.3%, 전남지역은 71.8%로 전월보다 각각 0.6%p, 0.9%p 떨어졌다.

이는 최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고유가와 환율하락, 추석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전자부품·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등이 65% 이하의 낮은 가동률을 보였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기름값 치솟아 연탄 사용 가구 늘어

광주 3년째 증가세

고유가 행진이 계속되는 가운데 광주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내 연탄 사용가구는 2004년 1천810 가구, 2005년 2천48 가구, 지난해 2천97 가구로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4년까지만 해도 연탄 사용가구는 도시가스 보급 등에 따라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05년 들어 증가세

로 돌아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름값이 계속 올라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해에는 연탄값도 지난해에 비해 장당 37원 올라 빈곤층의 겨울철 난방대책 마련이 더욱 절실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정부에서는 연탄 사용가구 중 기초수급 대상자에 한해 가구당 3만3천원을 쿠폰형식으로 지원했다. /채희정기자 chae@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Yujin' restaurant, featuring images of food and text describing the restaurant's location and quality. Text includes '부동산 가격의 차별화된', '高品質 장동일본식권문집 유진'.

Advertisement for 'Jeonnam Bank' (전남은행) with a focus on 'Jeonnam Bank' (전남은행) and 'Jeonnam Bank' (전남은행). Text includes '지속적인 유가', '저렴하고 민중', '초절전형 냉난방기 리스 하자!', '무르두임 호피'.